

나주시, 정책 아이디어 풀가동... 2023년 '뜻세움' 발대식



나주시청 공직자들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톡톡 튀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머리를 맞댄다.

2011년 발족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올해 6팀 53명 참여 관광, 임신·출산, 먹거리 등 다양한 분야 정책 연구 수행

다. 뜻세움은 시민, 공무원, 타 기관 임직원 등이 함께 연구과제를 선정, 새로운 정책으로 발굴·반영하는 시정연구모임 동아리로 지난 2011년 발족해 올해로 13년째를 맞았다.

뜻세움 명칭은 '시민 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생각과 뜻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뜻세움 등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신규 시책 발굴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다방면에 걸친 시정 연구과제 81건을 발굴해 46건이 해당연도 시정·시책에 실제 반영되는 등 알찬 결실을 거두고 있다.

2021년의 경우 총 6개 과제 중 '나주시 공공 배달앱 도입',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제도' 등 5개 과제가 소관 부서 시책에 반영됐다.

올해는 6개팀 구성원 53명이 '체류형 관광', '먹거리(음식명소화)', '결혼·임신·출산', '영·유아 양육지원', '노인 치매' 등 다양한 분야 정책 연구과제를 각각 수행한다.

각 팀은 4개월 간 연구 모임, 분기별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오는 9월 연구 성과물에 대한 최종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는 제출된 연구 성과물의 평가·심의를 거쳐 실제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강영구 부시장을 비롯해 뜻세움 참가자 전원이 참석해 팀별 연구과제 선정 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 발표와 팀 구성원 소개 등 첫 만남 자리를 가졌다.

강영구 부시장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알찬 정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지"며 "팀원 간 굳건한 협력을 통해 뜻세움의 명맥을 이어가고 좋은 결실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나주=송준표기자

2023화순고인돌축제, 축제장 곳곳에 힐링 공간 마련

깊어가는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싶다면 오는 21일부터 막을 올리는 2023화순고인돌축제 제장으로 오는 것을 추천한다.

'2023화순고인돌축제'는 지난 3년여간의 긴 코로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맞이하는 첫 축제로, 유채꽃과 아름다운 조형물, 갖가지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을 반기고 있다.

특히, 화순군은 세방지 못지않은 경관을 자랑하는 물멍자리(울곡2지)에 빈백소파를 배치하여, 내방객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를 가르는 보검재에서는 축제기간 주말(토·일)을 이용해 힐링존을 운영한다. 심신을 치유하는 4가지 요

가와 명상체험을 통해 감성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다.

춘양면 잔디광장에는 아름다운 문양의 그늘막 아래 인디언 텐트와, 빈백소파를 배치하여, 축제장을 찾은 가족, 연인들에게 특별한 안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가 저물고 맞이하는 이번 축제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주민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시골시골한 일대에서 잠시 벗어나 잠시 사색을 즐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 대변신 예고

기차마을 플랫폼, 장미공원 확장과 함께 다양한 관광 기반 시설 확충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는 지금 천만 관광 시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998년 폐선된 전라선을 활용해 대표적인 기차 테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의 특구 면적을 총의공원까지 대폭 확대하며 곡성 관광의 백년대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 고도화 1단계 사업을 통해 장미공원을 두 배 규모로 확장한다. 새로운 장미공원 구간은 세계에서 온 선물이란 테마로 장미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나라별 다양한 조경시설물 설치와 장미 식재로 아늑하고 이색적인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

섬진강 기차마을 내에서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설물인 레일바이크도 수요 맞춤형 운영을 위해 새롭게 재탄생했다. 구 곡성역

사 앞에서 요술랜드 인근까지 가서 되돌아오는 운행 구간 중 기존의 레일바이크 정비소를 터널로 리뉴얼해 야간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꾸몄다. 확장 구간은 장미축제 이전인 5월 초에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차마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기차플랫폼과 다목적 광장을 구축하고 관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원스톱 투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리고 총의공원 내에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10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한 동화 정원 기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민들의 쉼터 공간을 조성하고 동화적인 콘텐츠를 도입해 관광시설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곡성=양해영기자

담양군, 명품 딸기 생산 위한 '제16기 담양군 농업인대학' 운영

딸기 수경재배반 교육...다양한 현장 상담 추진



담양군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제16기 담양군 농업인대학 딸기 수경재배반을 운영한다.

이번 농업인대학은 이론 중심의 강의실에서 벗어나, 영농현장의 예로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상담, 선진지 견학 등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문 지식 습득과 소비자의 선호도에 대응하는 고품질, 다수확 딸기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을 교육한다.

이병노 군수는 "기후변화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알찬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담양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농업 전문경영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군 농업인대학은 2008년부터 1기 주로차 과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4개 과정, 540회에 걸쳐 92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들은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등에 앞장서며 지역농업의 리더로서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제21회 구례 전국가야금경연대회 개최

5월 6일부터 이틀간 섬진아트홀...총 14개 부문 뜨거운 경연 예정

구례군이 주최하고 (사)가야금병창보존회(이사장 강정숙)가 주관하는 제21회 구례 전국 가야금경연대회가 5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섬진아트홀에서 열린다.

전국 초·중·고등부, 신인부, 대학부, 일반부가 참가해 가야금 산조, 병창, 창작 등 총 14개 부문에서 뜨거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 참가 신청은 구례군 또는 (사)가야금병창보존회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 후 작성해 오는 4월 30일까지 (사)가야금병창보존회 사무국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일반부 대상은 대통령상, 금상으로는 문화재청장상이 수여되며, 대학부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가야금 산조의 거장 서공철 명인의 고향, 국가무형문화재 향채줄풍류와 잔수농악을 계승하고 있는 예향이자 소리의 분향인 구례에서 국내 최고 권위의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하니 재능 있는 인재들이 많이 참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 전국가야금경연대회의 21주년을 맞아 5월 5일(금) 오후 5시에 섬진아트홀에서 역대 수상자와 지역 예술인이 함께하는 축하 공연이 열릴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